



언제까지 취업공부 해야 돼? 취준생 애환 담은 웃픈 신조어

공밀레(공돌이+에밀레종)

이공계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가 발생했을 때 사용. 에밀레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최첨단 기기를 두드리면 '공밀레' 소리가 들린다는 애환이 담겨있다.

니트족

현재 일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청년 무직자를 뜻한다. 취업 의지가 있지만 하지 못하는 백수와는 차이점이 있다.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로,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 층을 일컫는 말이다.

오스트랄로스펙쿠스

오스트랄로스펙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스펙'을 합친 단어로, 과거 토익이나 학점과 같은 기본 스펙만으로도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취업 호황기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서탈/면탈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로 각각 서류 탈락, 면접 탈락의 줄임말이다. 분기마다 수십개씩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취준생들에게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아닐까.

스펙파티

취준생이라면 '○○기업은 스펙파티래~'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지원자들이 모두 고스펙인 경우 스펙파티라는 말을 쓴다. 상대적으로 스펙이 적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

중고신입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준비하는 경력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재취업의 과정에서 경력이 있는 구직자가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을 중고신입이라고 말한다.

A매치데이

A매치데이는 원래 축구의 국가대표팀 간 경기를 말하지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이나 필기시험일이 겹쳤을 때를 의미한다.



취업해도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기계발 하는 직장인들

샐러던트(Saladent)

공부하는 직장인이라는 뜻으로 샐러리맨(Salaryman)과 스튜던트(Student)를 합친 신조어다.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현재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중 60% 이상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점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 더 좋은 직장으로서의 이직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워라밸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현재 핵심 생산인구인 20~30대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 부와 명예를 쌓기보다 '개인의 행복과 삶'에 가치를 두는 것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퇴근 후의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도 '탄력적근무제' 도입,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워라밸'을 꿈꾸는 샐러던트들을 위한 4가지 추천 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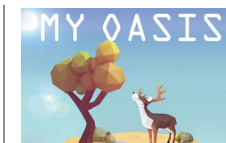
탈잉

'탈잉'은 잉여탈출이란 뜻의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강의로 등록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능공유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표방한다. 직장인들이 시간과 장소를 상황에 맞게 매칭하고, 편리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TED

하루 15분씩 투자해 스마트폰으로 세계적 지식인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앱이다. TED는 각 분야 산업 트렌드부터 일상에 희망을 전하는 스토리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강연회다.



마이 오아시스

'마이 오아시스'는 책박한 오아시스에 나무, 동물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의 힐링게임이다. 감미로운 배경에 '비 내리는 소리' 등 여러 음악 요소를 삽입해 출시되자마자 '퇴근 후 즐기는 힐링게임'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컬러필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취미로 각광받고 있는 컬러링(색칠)을 앱으로 구현한 '컬러필(ColorFill)'은, 종이와 색연필 없이도 컬러링을 즐길 수 있다.